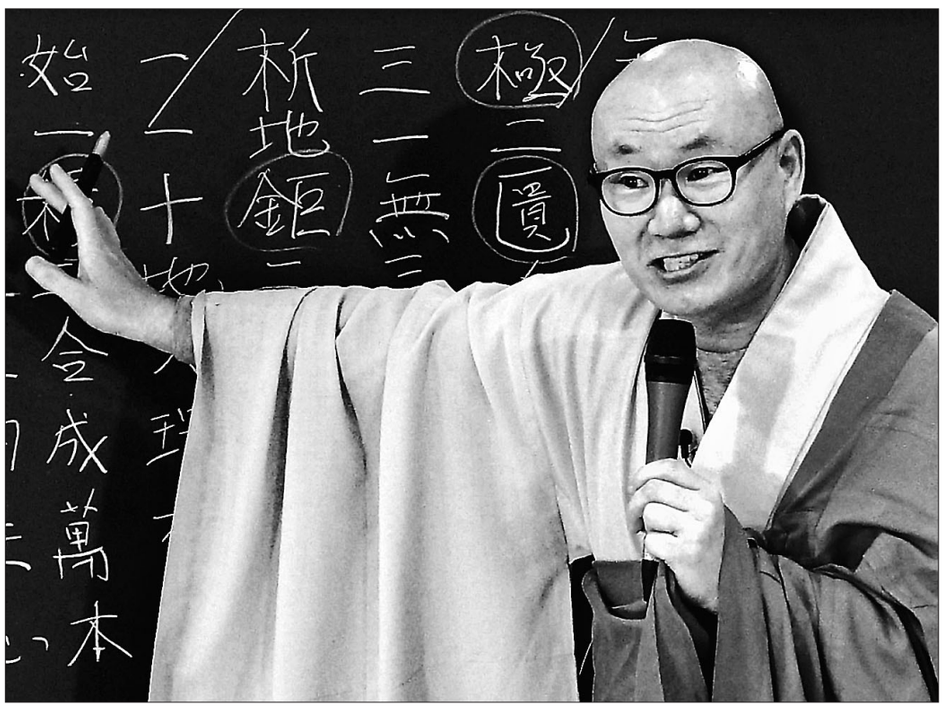
천부경 내용은 불교교리와 상통한다

참불선원 불교인문학 강좌… 불교와 민족경전 천부경

비로선원장 광명 스님

천부경은 흔히 대종교(大倧敎)의 기본 경전이지만 환국(桓國)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던 것을 최치원이 번역했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위경 논란은 학계에서도 분분하다. 게다가 쉽지 않은 해석으로 학자마다 다른 의미로 뜻풀이를 하기도 한다. 천부경의 올바른 해석은 무엇이고 불교와는 어떤 접점이 있을까? 비로선원장 광명 스님은 7월 11일 서울 참불선원 인문학강좌서 "천부경 속 숫자를 읽을 때 '1'이 아닌 '하나'로 읽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천부경은 불교의 해탈·연기 등 핵심교리와 의미가 통한다"고 설명했다. 정리=이승희 수습기자



광명 스님은… 통도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강남 봉은사 교무국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성불의 길 법화경〉〈천부경〉 등이 있으며, 현재 비로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다.

환국 때부터 전래된 81자

여러분 천부경을 아시나요? 얼핏 아는 사람들은 이 천부경을 기수련이나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이 신봉하는 주술적 비기(秘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막연했던 천부경의 정체를 확실히 하고, 불교가 전하는 가르침과 비슷한 뜻을 전하고 있는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천부경이 실린 역사서 〈환단고기〉는 매우 방대한 내용의 책입니다. 천부경은 내용 자체도 매우 심오하므로 오늘 강의에선 간단하게 의미를 해석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신 천부경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단 말을 먼저 드립니다.

〈환단고기〉는 운초 계연수 선생이 집필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역사서들을 모아 20세기 초에 저술했습니다. 그 속에 천부경이 포함돼 있습니다. 1970년대 이 책이 처음 대중에게 공개됐을 때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막연하게 신화로 인식하고 있던 환인, 환웅, 단군의 역사가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인지 아직까지 위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역사서 〈환단고기〉에 '천부경은 천제 환국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글이다…최치원이 일찍이 비석에 새겨진 글귀를 보고 세상에 전한 것이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국내에 천부경을 해석한 책이 40권이 넘습니다. 각자 본문을 끊어 읽은 방식이 다르고, 따라서 해석도 서로 분분합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끊어 읽는 구절마다 앞에 번호를 붙였습니다.

1. 一始無始一(일시무시일)
2. 析三極 無盡本(석삼극 무진본)
3. 天一一 地一二 人一三(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4. 一積十鉅 無 匚化三(일적십거 무궤화삼)
5. 天二三 地二三 人二三(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6. 大三合 六生七八九(대삼합육생칠팔구)
7. 運三四成環五七(운삼사성환오칠)
8. 一妙衍萬往萬來 用變不動本 (일묘연만왕만래 용변부동본)
9. 本心本太陽昂明(본심본태양앙명)
10. 人中天地一(인중천지일)
11. 一終無終一(일종무종일)

내용을 살펴보면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숫자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단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환단고기〉에 81자가 환국 때부터 입으로 전래됐다고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환인 시대에는 한문이 없었습니다. 고대에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있었고, 천부경도 처음엔 순수한 옛 우리말로 전해졌을 겁니다. 이걸 고려 때 최치원 선생이 한문으로 바꿨고 그 한문 천부경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천부경 속 숫자를 읽을 때 '일'이 아닌 순수 우리말 '하나'로 읽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본체·해탈·연기 등 담고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은 "일체만물은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본디 '하나'는 시작이 없다. 이 하나는 '삼극'으로 나뉘지만 본체는 무한하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절은 다른 천부경 해설서에서 흔히 "하늘은 그 하나의 첫 번째요, 땅은 그 하나의 두 번째요, 사람은 그 하나의 세 번째다"로 해석하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옛 우리말에서 하나는 본래 '환하다' '밝다'는 뜻입니다. 우주 진리의 '본체'를 일컫습니다. 원래 진리는 환하고 밝은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 환한 것을 하늘에 비유한 겁니다. 본체는 냄새도 형상도 없습니다. 이 '본체'의 성질을 3가지로 비유했는데, 첫 번째가 하늘, 두 번째가 땅, 마지막 세 번째가 사람입니다. 본체는 마치 하늘처럼 잡을 수 없고, 무한하며 모양도 없습니다. 본체의 덕성은 지혜롭습니다. 지혜를 땅에 비유하는 이유는 불교 경전 〈대승기신론〉에서 우리 마음을 '체(體)·상(相)·용(用)' 셋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들은 각각 마음의 본체, 마음의 양상, 마음의 활용을 지칭합니다. 셋 중 상(相)이란 무한한 덕성을 지닌 성정으로, 흔히 땅에 비유합니다. 땅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광물과 영양분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물질을 사용하는 힘을 지닌 주체가 사람입니다.

네 번째 구절은 "선업을 하나하나 쌓아서 거대한 십극(시방세계)을 덮을 만큼 되면 업을 벗고 대우주와 하나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의미와 뜻이 매우 닿아있습니다. 본체는 하나이므로 하늘에는 땅(지혜)과 사람(무한 활용의 힘)이 들어 있습니다. 땅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구절은 어느 성질 하나 빠지지 않는 본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별개가 아닌 이 셋이 합해 영원함을 이룹니다. 여섯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숫자 '여섯'은 예로부터 무한함을 의미했습니다.

고대사 기록 속 '천부경'
우리말로 풀어 접근하면
연기적 세계관 알 수 있어
불자들에게도 도움 된다

"천·지·인을 운용하여 일체만물을 이루고, 이들 만물은 만 번 가고 만 번 와도 본질이 변하지 않고 밝다. 사람에게는 덕(하늘)과 지혜(땅)가 있으니 이 하나는 끝이 없다"는 일곱 번째 구절 이하 내용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緣起法)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고대 한국사를 노리는 중국

천부경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천부경이 환인 시대 때부터 전승됐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환인 시대는 3301년간 지속됩니다. 이후 환웅 시대는 1565년, 단군 시대는 233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닌 '대통령' 같은 최고 직책 이름입니다. 이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역사는 여태까지 총 9천 년의 역사인 셈입니다. 천부경에는 환인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운 '소도'라는 곳을 기억하십니까? 소도는 성역으로, 범죄자가 이곳으로 도망치면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도가 환웅 시대 때부터 천부경과 삼일신도를 가르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공간이기에 이곳으로 도망친 범죄자를 잡아 교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웅 시대 때 과연 어떻게 천부경과 같은 위대한 사상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전의 유구한 역사를 안다면 가능하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20세기 초 중국역사학자 '호적'은 미국 실용주의 사상가 존 듀이 밑에서 수학하고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호적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베이징대학에서 중국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채용될만큼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기원전 841년 이전의 중국 역사는 못믿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한무제 때 역사서 〈사기〉에 황제, 전국, 제국, 요, 순, 오제, 하·상·주, 한나라를 모두 중국역사라고 기술했지만 정작 정확한 연도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에 12제후연표를 적어 각 제후들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주나라 제18대 마지막 려왕의 폭정에 민란이 일어나 왕이 축출되어 대신들이 다스리던 때를 '공화기(共和期)'라고 합니다. 기원전 841년을 공화원년이라고 칭했는데 이전의 기록이 없어 사실임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뒤이어 〈고사변〉의 저자 '고힐강'이라는 학자가 호적의 말을 듣고 중국 고대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또한 기원전 841년 이전의 역사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들과 같은 생각을 한 고사변파 학자들은 1940년대까지 중국 학계의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뒤 중국에서 모택동이 국가발전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공산당에서 5년마다 국가 모든 분야의 계획을 세우는데 제9차 5년계획(1996~2000년) 때 '하·상·주 단대공정'을 실시했습니다. 청화대학 출신 '송건'이 주창한 이 계획의 저변에는 중국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의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송건이 이집트, 이스라엘, 중동을 순방하며 이들 문명권이 모두 기원전 3000년의 역사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 중국 황하문명은 기원전 2000~1500년으로 확인돼 그는 무척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사변파 학자들의 말은 이마저도 반으로 뚝 잘라 중국역사를 축소하는 꼴이니 용납할 수 없었겠죠. 그는 최소한 하·상·주 시대만이라도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중국역사로 편입하고 싶어했습니다. 황하강 서쪽에서 일어난 이들 문명권을 조사해보니 하나라는 기원전 2070~1600년까지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2001년도에 중국 중앙신문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단대공정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은 '중화문명 탐원공정'을 벌였습니다. 2003년 정식 개시한 이 공정은 삼황오제 신화 시대를 모두 중국 역사시대로 만들어 중국의 역사적 실체를 무려 1만 년 전으로 끌어 올리려는 의도를 지녔습니다. 요하지방에서 발견된 문명의 흔적들을 중국문명으로 둔갑시키려고 했는데, 과연 이들이 한족의 문명일까요?

중국은 예로부터 황하 문명권임을 스스로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주 요하지방에서 엄청난 유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을 7개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문명은 소하서문명인데 기원전 7500년 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흥융화, 사해, 조보구, 홍산, 소화연 문명권들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된 옥귀걸이의 재료인 옥이 압록강 근처 수암현이 출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지역은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터를 잡고 살아온 곳입니다. 옥귀걸이 발견지와 재료 출처지는 450km의 넓은 거리인데 같은 문화권이 아니라면 유통되기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요동과 요서 지방이 한 문화권이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또 흥융화문명의 특징인 빗살무늬토기는 황하문명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요하지방에서만 발견되었죠. 요하문명과 황하문명의 지역적·시대적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쯤되면 홍산문명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족이 황제족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요하지방에서 일어난 문명 모두를 중국문명권으로 포함하려 합니다. 고조선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을 중국 황제의 후손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황제족이 치우와 전쟁이후 '이겼다'는 〈사기〉 기록과는 달리 이들은 고비사막 서쪽에서 양소지역으로 남하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쪽이 물러날리 없습니다. 〈환단고기〉에는 치우가 이들을 굴복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족은 저 멀리 카스피해로부터 몽골 초원지대를 거쳐 요하에 왔다고 기록합니다. 스스로 '환'이라고 부르는 이들 민족은 밝은 성정을 지녔고 홍산문명의 기원입니다. 홍산문화에는 신석기 문화 특징이 모두 담겨 세계 학자들이 요하지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중국은 스스로 웅녀와 단군상을 만들어 이 지역 고대사를 본인의 역사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나요?

차주 강의 소개

주제 : 불교와 정신문화세계
강사 : 前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
문의 : 1577-3696

대한불교전통조계종 공고

본 종은 종지종풍을 세우기 위하여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2005년도부터 2016년 7월까지 탈종자 및 체탈자를 제적 공고합니다.

▷ 총 208개 사찰과 승려 212명 ◁

제적 사찰

순번	사찰명	법명	성명
1	각원사	혜일	이규상
2	각황사포교원	정각	최현대
3	감로정사	도현	김철우
4	거림정사	돈오	이용득
5	견성암	설산	주민대
6	관음사	대행	이군자
7	관음사	도명	정묘봉
8	관음사	명광	배철환
9	관음사	비담	김영복
10	관음사	상열	최철환
11	관음사	수산	이종복
12	관음사	운산	이길락
13	관음사	원공	공유철
14	관음사	원당	최구봉
15	관음사	자비행	전예방
16	관음정사	지연	유지자
17	관음정사	진만	김번호
18	광덕선원	법진	윤덕기
19	광명사	무안	김광윤
20	광명선원	법성	김윤하
21	광불사	지광	강영주
22	국선사	석영	안정수
23	극락사	무심	김문택
24	극락사	본심화	정혜란
25	극락사	영산	김영준
26	금강사	도림	박용석
27	금강선원	도천	김성중
28	금강선원	성전	김기영
29	금강정사	지웅	권영호
30	금륜사	법공	정덕호
31	금오정사	진공	이종봉
32	금장사	백담	임용수
33	금화사	금화	
34	기원정사	덕산	장동익
35	다보사	도일	이태경
36	다솔사	법연	고경숙
37	달마선원	다윤	최인숙
38	달마정사	덕정	박정일
39	달마정사	명석	김대식
40	대각사	무변	조성순
41	대각사	지암	이승민
42	대광암	여래	차성숙
43	대국사	남호	이상철
44	대금암	수공	윤영식
45	대도사	무량	허철령
46	대성사	청산	
47	대성사	혜능	배재문
48	대성암	지호	정병철
49	대원사	규봉	김희안
50	대현정사	월산	최정훈
51	도경사	도관	이재순
52	도선사	정광	김억수
53	도세암	보각	이학규
54	도솔암	권해	서재희
55	도솔천영일암	도법	윤필훈
56	동암사	혜산	김종원
57	마하보리사	한바다	박광수
58	무량사	덕암	이중곤
59	무량사	자은	김봉한
60	무량사	정진	강태조
61	무량선원	해덕	김정숙
62	문수사	현덕	장철수
63	미륵암	청운	차복원
64	미타사	묘법	김재우
65	미타사	해인	곽기영
66	미타사	현각	최종규
67	미타정사		유봉순
68	백련암	성도	안진각
69	백림사	진묵	이인식
70	백운사	보행	정희순
71	백화사	만봉	문용이
72	법륜사	해천	강경배
73	법천사	법천	정동식
74	법화정사	덕원	배성필
75	보각정사	보각	정임상
76	보금정사	혜득	백인훈
77	보덕사	성법	윤주천
78	보덕사	지원	신임순
79	보성사	중천	이상규
80	보성사	해운	
81	보연사	진광	김동원
82	보현사	청호	최영훈
83	보현암	혜정	서영주
84	복두암	법승	이종석
85	봉경사	아산	이옥례
86	봉덕사	봉천	김병술
87	봉덕사	우성	정진화
88	봉두암	거산	우광섭
89	봉암사	정산	노성열
90	봉천사	보문	김산원
91	불각사	혜운	원찬호
92	불광사	연화심	서종애
93	불광사	지공	김채식
94	불광사	청봉	김정헌
95	불광사	혜천	김유진
96	불심원	무안	이수민
97	상원사	도철	조재균
98	서봉사	의연	나해옥
99	석연암	정묵	김종수
100	선각사	담연	강길희
101	선향사	주현	송선집
102	성덕사	홍신	조애란
103	성덕암	무상심	주영덕
104	성덕암	지오	김정규
105	성봉사	도천	강성호
106	성봉사	범일	장명술
107	성봉사	정도	최재학
108	성봉원	지도	차우영
109	성왕사	도문	박승효
110	성취암	강보현성	강경숙
111	소림사	혜륜	심중협
112	소원사	거봉	황의철
113	송정암	반월	박수근
114	수월사	혜명	권숙경
115	수진정사	수진	김미영
116	시조암	지공	장 한
117	신비암	지경	김희순
118	신인정사	도성	이병무
119	신흥사	관행	공영환
120	심길사	심길	이영현
121	쌍용사	금구	김용진
122	쌍용사	혜광	송철환
123	약사사	법련	심성희
124	약사여래사	혜성	이광희
125	약수암	석문	이종현
126	약수암	홍일	최철수
127	약왕정사		정인성
128	약천암	보명	박강수
129	연봉사	혜봉	김일석
130	연수암	보승	박영서
131	연지암	법향	정영조
132	연화사	연화	노명옥
133	연화사	진현	김은구
134	영광사	일운	유경자
135	옥련암	능현	강일선
136	용각사	혜산	하재수
137	용광사	덕광	신동원
138	용광사	우담	이영재
139	용덕정사	동은	한지광
140	용수사	해성	강진현
141	용연사	법천	이동수
142	용원사	무아	김상열
143	용원암	무원	박강직
144	용해사	지우	최윤경
145	우주정사	우주	손은수
146	운암사	운암	황영규
147	원불원	도율	전영지
148	원응정사	동법	정철수
149	원효사	원담	조중섭
150	원효암	운오	임복균
151	은진사	범송	라봉진
152	은천사	상경	박창욱
153	이루사	일원	이기령
154	인황지사	인황	김상준
155	일성사	일성	유은정
156	일월사	정인	문준호
157	일월사	해담	
158	자명사	경민	강경순
159	자비사	대안	정금호
160	자성암	연화행	안병옥
161	자은암	호당	임선순
162	장원사	장원	장경수
163	장흥사	도경	이홍길
164	정각사	해월	박병선
165	정림사	보문	최충환
166	정불사	정타	신익경
167	정음사원	정음	김귀종
168	정토사	인묵	김상범
169	정혜사	정호	한병우
170	제원사	정각	배연우
171	죽림정사	청송	박병진
172	지곡사	도문	김호근
173	지도사	지도	이영상
174	지장사	무성	김영선
175	지장사	지성	왕영배
176	지장사	현오	김태성
177	지장암	대원	고병훈
178	지장암	태극	이판선
179	지장정사	현우	정희란
180	천등사	혜성	정두섭
181	천룡사	법수	김현욱
182	천수사	정진	나정청
183	천수사	청화	이승민
184	천왕사	묘법	김영규
185	천지암	연화심	윤혜영
186	철마사	용담	전승용
187	청량사	원불화	김점례
188	청운사	혜각	이인성
189	청인사	청인	심영일
190	청정사	수현	곽노달
191	청해사	일봉	박성훈
192	취선선원	지용	제갈봉현
193	태고사	호산	신성호
194	태극사	법운	유대식
195	팔공사	혜명	하창신
196	해동탑사	초오	유인묵
197	해우정사	인우	이은열
198	해운정사	청명	박미숙
199	해원사	원일	오순석
200	현불사	성월	오석근
	용화선원		
201	현정사	원담	김시영
202	혜각선원	혜일	김성술
203	혜광사	혜오	김봉규
204	혜덕암	덕암	장정배
205	화응사	묘각	박준용
206	화타암	도원	김중문
207	황복사	미봉	전헌수
208	황용사	혜원	강영홍
209		증우	이종원
210		자명	김외숙

체 탈 자

혜광 송철환
혜성 정두섭

상기 사찰과 승려는 본 종 명의를 일체 행위 및 사용(기부금 영수증 발급등 중지)할 수 없으며 2016년 7월14일자로 제적을 공고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동담·사정원장 귀천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 총본산 각황사 종무실 / 053) 325-0400